

“전주종합경기장에 전라밀레니엄파크 조성”

정동영 후보, 도-전주시 개발 갈등 관련 해결 공약 제시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전주병)가 전주 종합경기장에 전라밀레니엄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동영 후보는 “2018년은 전라도라는 이름이 생긴지 100년이 되는 해다. 2018년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함께 종합경기장에 전라도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전라밀레니엄파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된 청사진을 과감히 제시해 눈길을 끈다. 정 후보는 전라밀레니엄 파크를 통해 ▲

신라밀레니엄파크와 연계한 동서회합 ▲ 전라북도중심을 전북으로 이전 ▲한옥마을 관광객의 덕진구로 이동 ▲종합경기장과 관련된 갈등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영남관에 있는 신라밀레니엄 파크와 연계해 동서회합은 물론 전주권 관광 문화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려 지역경제활성화를 공격적으로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객들을 전주종합경기장으로 유인한다는 점도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점차 사

라지면 관광객 감소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한옥마을 주민과 전주시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 후보는 상권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전주종합경기장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덕진공원과 건지산으로 이어지는 물레길을 통해 전주만의 문화적 풍토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전라밀레니엄파크에 전라도 탄생 100년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고, 역사체험공간, 공연장 등 예술과 역사가 융합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관광도시 전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완산구의 한옥마을과 덕진구의 전라밀레니엄파크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관광 전주를 융

성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입장 차이로 종합경기장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국비 70억 원도 사라졌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전라밀레니엄파크는 종합경기장 문제를 페도난마처럼 해결하고 전주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공약에 대한 예산 소요액 추정이나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2017년 여야 대선공약화하고 2018년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로드맵을 공개했다. /특별취재반

전주시의원 3명 국민의당 합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 1명과 무소속 전주시의원 2명이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무소속 김윤철(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안영환(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명(삼천 1·2·3동, 효자 1·2동) 시의원은 2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바람직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면서 ‘일당 독주를 깨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진정한 지역발전점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영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있는 결단으로 국민의당에 입당한 시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민과 도민들을 바라보고 충선에 임하겠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여야 후보자간 인사 서울 종로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29일 서울 이화동 주민센터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봉균 “외국인 근로자에 영주권 부여 중기 인력 해결을”

새누리당 강봉균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도 주면 어떨까”고 중소기업 인력 부족 사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부여를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숙련된 외국인들이 좀 오래 머물러 어떨까. 이런 개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조금 더 눈으로 보면 노동 인력 구조도 심각한 문제다. 잘 알겠지만 중소기업이랑 자영업자들이 외국인을 많이 안 쓰면 존립이 어렵다며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력 자체가 줄어든다. 우리도 이를 방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700만명이 넘는 한국 교포가 있다”며 “교포들이 한국이 발전되는 게 부러워서 돌아오고 싶어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서기관에 가면 외국인들이 제법 많다. 그렇게 신기술 사업, 벤처기업들은 인력이 있고, 돈이 있고 개방해야 한다”며 “인도나 이런 데 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있다. 갖다 써도 나쁠 게 뭐 있냐”고 말했다. /이성주기자

새누리당, ‘옥새투쟁’에서 불거진 감정싸움 여전

김무성 “존영 논란 그만” · 친박 “우리가 알아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존영 논란’ 자체를 추구하고 나섰지만, 친박계는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즉각 일축했다. ‘옥새투쟁’에서 불거진 양측간 감정 싸움이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이는 공천과정에서 야기된 양측간 감정의 골이 여전한 것은 물론 총선이후 상황에 따라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계파갈등으로 비춰지는 언행이 없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전날 친박계가 양측간 대구시장에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탈당 파벌에게 대통령 사안이 담긴 액자(존영)를 시당에 반납할 것을 요구해 논란을 사고 있는 점을 문제삼으며, 더이상 이 문제를 확대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공천 파동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존영 문제로 당

전체가 회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김 대표는 또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을 자극하는 발언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자제령에는 친박 말형 서청원 최고위원도 동의했다고 인정한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자제령을 즉각 일축했다. 친박계 핵심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시당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 직후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존영 논란’ 자체에 대해 “그건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한 문제고, 대구는 대구대로 할 일이 있다”며 “대구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쓰어붙였다. 조 수석은 특히 공개 인사장에서 김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우리 당 높은 사람이라 얘기는 안 하는데 이번 공천에서 대구의 지존심을 짓밟은 사람이 있다면서 ‘(김 대표)분

명히 총선 이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김 대표를 두들겼다. 그는 이어 김 대표의 ‘무공천’ 결정으로 총선 출마가 원천 봉쇄된 ‘친박’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연단으로 불러 세운 뒤, “저는 이재만 후보를 새누리당의 공천 후보로 인정한다”며 “여러분이 인정하면 박수를 쳐달라”고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사실 없는 대통령의 개혁에 판지를 거는 것이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가며 ‘필리버스터를 9박10일동안 하는 야당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당 출신에도 판지를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 유승민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에서 원내대표를 한 사람이 모든 일마다 안타리를 걸었다”며 야당이 사회경제기본법을 해달라고 하면서 서비신법발전기본법과 바꾸자고 하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누가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반문했다. /이성주기자

4.13 선거 RUN·RUN·RUN

이석권 후보, “모 방송사 주관 토론회 불공정하다”

기호 6 무소속 익산을 이석권 국회의원 후보는 “29일 전주에 소재한 모방송사 주관한 합동 토론회가 불공정한 토론회”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토론회 전 모방송사의 통화에서 여론조사가 5%가 넘으면 무소속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하지만 모방송사는 무소속에 대한 여론조사의 원칙과 자료가 없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마친 후 이 후보가 사회자에게 물었다 “공정해야 할 언론이 특히 기독교방송에서 무소속을 배제하고 토론회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고 시장후보인 익산시에 출마한 김도 후보는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라는 통보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무소속 중에서도 배제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모 방송사 관계자는 “선거법상 방송사 자율에 맞긴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석권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할 언론사의 행태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석권 후보는 “말하고 싶고 외치고 싶고 ‘진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 또한, 4.13총선으로 익산 시민의 승리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석권 후보는 행패를 무릅쓰고 토론회에 참석해서 토론회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근거를 따진 결과, 방송사 재량으로 유력후보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별취재반



이한수 후보, “명품 관광도시 익산 만들겠다”

국민의당 이한수 익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이하 이 후보)가 5대 종교 벨트화 등을 통한 500만 관광객 유치 제시하며 명품 관광도시 익산 만들기를 선언했다. 이한수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원불교, 불교, 유교 등 5대 종교의 역사가 살아숨쉬는 지역 곳곳의 종교 유적을 한데 묶어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우뚝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할리우드에 위치한 6만여명의 산림청 부지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이곳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주변 일대에도 한방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농촌 문화명상센터를 건립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일명 한반도 호수공원이라 불리는 금마저수지 주변 경관을 보다 풍부한 볼거리 제공으로 바꾸기 위해 이곳에 사랑의 다리를 만들고 서동선화 사랑을 비롯한 보석사탕, 아울러 핑크의 생활상이 담겨진 ‘사랑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외국인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 지역 최고의 쉼터로 만들어 나갈 각오이다”고 강조했다. 지역 곳곳에 산재한 유적과 유물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힌 이 후보는 “전국 대표적 축제로 자리잡은 서동선화축제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왕궁리 유적의 사리점점과 사리봉안 등 백제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드높이기 위해 이들 유물들이 역사과거사에 수록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김관영 후보, “국민의당, 호남 정치 위상 앞장”

국민의당 전북도당 김관영 위원장(국민의당 전북 군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당이 호남 정치의 위상을 세우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각 정당이 화강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중 전북출신의 후보자는 국민의당 4명, 새누리당 3명(전북 태안, 전북대 교육학과 졸업인), 더불어민주당 2명이다. 김 위원장은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중앙에서도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전북 출신의 정치인을 양성하고 키워내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전북 출신의 정치인을 양성해 그동안 정계에서 소외되었던 호남 정치의 위상을 살리고 고질적인 병폐에 빠진 양당체제에 ‘국민의 비탈을 일으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전북 정치인 양성이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전북도민의 소리를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앞장서서 대변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북출신의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4인은 박주현 후보(전북 군산, 前대통령 국민참여수석비서관, 現 국민의당 최고위원) 체이배 후보(전북 군산, 現국민의당 공정경제위원장, 現중소기업재난구조사 연구위원) 김중로 후보(전북 군산, 前보병 제7사단장, 前동국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임재훈 후보(전북 익산, 現국민의당 사무부총장, 前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특별취재반



김광수 후보, 선대본부 출정식 50여명 구성

국민의당 전주갑 김광수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28일 출정식을 갖고 4.13 총선 대장장에 들어갔다. 김 후보 선대본부는 김윤철·안영환 전주시의원을 비롯 전·현직 지방의원과 각계 지도층 인사, 지역 원로 등 총 50여명으로 구성됐다. 주재민 전 전주시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정식에서 선대본부는 “나태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전북 정치권을 바꾸기 위해 ‘생각사수족’의 각오로 이번 총선에 명운을 걸겠다”면서 “뜻진 선거역량을 통해 김광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패거리 정치 선거 쟁들의 정치 를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선대본부는 이어 “전북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민주당의 오만과 자만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심판해 고사상태에 빠진 전북 정치를 되살려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정당교체, 인물교체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필승을 다짐했다. /특별취재반



함운경 후보, 더민주 김윤태 후보에 단일화 제안

20대 총선 군산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함운경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다. 함운경 후보는 29일 오전 군산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계열 두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복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 후보는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인 다음달 4일 이전에 여론조사 등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에서는 더 민주당 부담을 추진한다 무산된 함 후보 측이 단일의 경우후보단일화가 무산되더라도 이른바 민주계열 표심 분열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원주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별취재반



최행식 익산시장 후보, 바람직한 선거풍토 조성

새누리당 최행식 후보(익산시장, 사진)은 2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북지역 후보자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전북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공약과 깨끗한 선거운동 등을 통해 바람직한 선거풍토 조성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최 후보는 “오늘부터 선거기간 동안 연달아 개최될 예정인 언론사 초청 후보자 토론회 준비를 위해 그동안 발표한 공약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한편 관련 정책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안이 큰 공약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관계자 등을 만나 세부적인 사업 점검에 나서 실현 가능한 정책미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소외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에도 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